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 이지은, 현 Yeon Design 디자인실장, 중부대학교 외래교수
by Lee, Ji-eun



2004년 건국대학교 디자인문화대학 공예학과 졸업, 2011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 경관조명 전문업체인 연디자인에서 디자인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부대학교 인테리어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공간환경디자인학회 조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공간디자인학회(KISD), 한국기초조형학회,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한강시민공원지구 및 연변 민간건축물 경관조명 기본설계용역(2007), 광주천 교량 개선사업 경관 조명 실시 설계 용역(2007), 인천 송도 스트리트몰 B블럭 경관 기본, 실시설계(2010-11), 의정부 기본경관계획(야간경관/2009-2010) 등이 있다.

목차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 만남	방선주	숭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조명디자인과 컬러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최근 도시 내 보행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일회성 디자인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중 도심부 보행자가로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야간경관에 다양한 조명과 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으면서 야간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성 있는 야간경관 계획이 필요하며 이것은 향후 국내 가로 보행공간에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현 시점에서 일차원적 조명 계획에서 그치지 않는 도시경관

요소로서 조화를 생각하며 사회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적 야간 공간 연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재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가로적 요소가 공존하는 공간인 도심부 보행자중심가로로 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 되거나 연출의 중심이 된 사례에서 야간가로 구성요소의 공간특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 장, 단점 등의 도출을 통해 공간 특성에 맞는 조명연출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 보행자중심가로에서 보행자 시점 중심의 연속 경관을 고려한 야간이미지 연구와 시퀀스요소 적용사례들을 통해 경관조명 시퀀스 표현 요소를 다룰 예정이다.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도시의 시퀀스 경관 요소로서의 경관조명에 관하여

4. The night scene of the urban pedestrian street and Landscape lighting direction:

About the Landscape lighting as the sequence element of landscape of the city

시작하며

오늘날 도시환경은 시민들에게 있어 다양한 경험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중 가로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심 속 보행공간은 사람의 통행을 수용하는 통과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삶이 반영되어 변화, 발전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행자중심가로는 가로변 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및 보행자간의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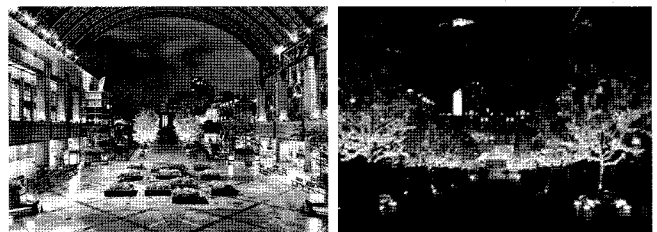
보행자중심가로에서도 야간 경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단순한 야간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기능적 역할 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미적이고 풍부한 야간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로에서 야간경관 연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건축조명 및 쇼윈도의 빛, 가로 등,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는 빛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통해 공간의 특성은 살리면서 빛의 효과적인 연출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안전성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층 개선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재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가로적 요소가 공존하는 공간인 도심부 보행자중심가로로 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 되거나 연출의 중심이 된 사례에서 야간가로 조명요소의 공간 특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 장, 단점 등의 도출을 통해 보행자중심가로 조명연출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보행자중심가로의 국외, 국내 경관조명 사례분석을 통한 현황 검토

분석 대상으로는 가로경관사업 중 야간경관이 활성화된 보행자가로 공간 사례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대상지의 범위는 가로 유형 중 도심상업가로와 보행자전용가로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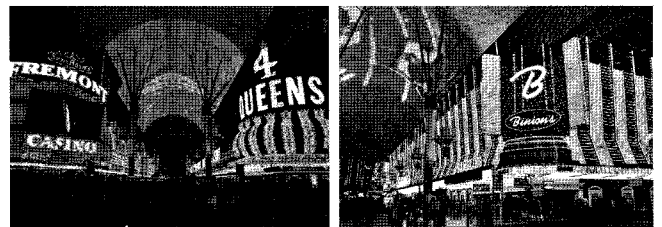
도쿄 에비스가든 플레이스(Yebisu garden place)



<공간 특성 및 효과>

- 고풍스러운 유럽풍 분위기와 어울리는 따뜻한 색온도의 면조명 방식이 공간과 조화를 이룸
- 가로를 따라 지중조명 업라이팅, 풋라이팅 등 수목의 생동감이 야간에 극대화되어 연출
- 계절에 따른 수목의 변화를 고려해 계절에 따른 각기 다른 야경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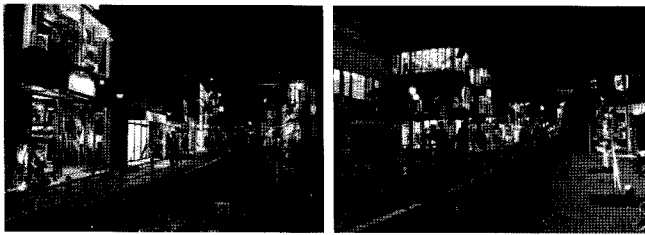
라스베이거스 트레몬트 스트리트(Fremont Street Experience)



<공간 특성 및 효과>

- 가로의 대표적인 특징은 카지노 유흥시설인 주변공간 특성과 연계되는 LED조형물의 연출
- 전체적 조명연출의 컨트롤로 조명쇼의 진행 유무에 따라 연출에 차등을 두어 효과적인 빛 효과
- 가로의 결절부에는 무대나 간이상점 등 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며 볼거리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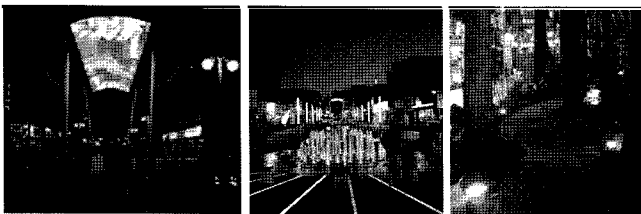
도쿄 캣 스트리트 (Cat's Street)



<공간 특성 및 효과>

- 보행등은 상징성 표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열주형태로 보행자의 은은한 동선 연출
- 고층의 랜드마크 건축물은 없으나 각각 상점분위기에 맞는 국부 면 조명 방식의 건축조명과 상점 쇼윈도조명의 아기자기한 조화를 이룸
- 간접조명방식의 은은한 조명패턴의 반복, 색온도의 통일성 등 과하지 않고 세련된 조명방식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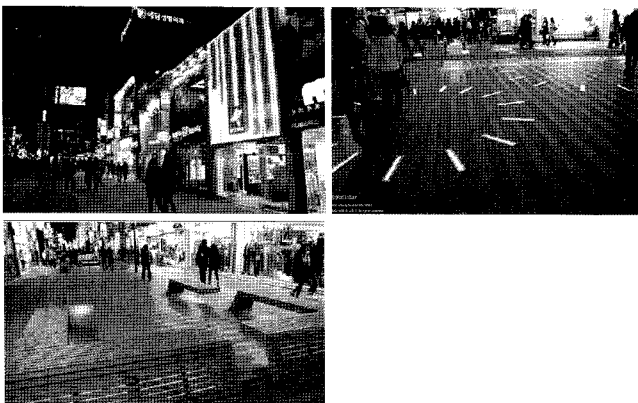
의정부 행복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및 효과>

- 확산형 보행등의 광원 노출과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조명의 시각적 광공해 요소로 가로경관의 저해요소로 나타남
- 전체적 가로의 조도는 높은 편이나 많은시설물 노출과 광공해 요소
- 4개의 광장부마다 다른 콘셉트로 시선을 끌고 있으나 규모에 비해 요소가 많음

대구 동성로 걷고 싶은 거리



<공간 특성 및 효과>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으로 주변 건축물, 간판조명, 시설물 등이 조화를 이루는 편
-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건축일체형 조명 방식이 많으나 일부 옥외광고물 및 쇼윈도조명의 지나친 휘도로 시각적 방해 요소가 나타남.
- 오픈스페이스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체험적 요소 부족

인천 송도 커널워크 (Canal Walk)



<공간 특성 및 효과>

- 상업 및 주거시설의 빛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적합한 조도확보
- 절절부 환경조형물, 바닥분수, 무대시설 등 확보, 조명연출 비교적 잘 되어있음
- 요소별 튀는 조명 없이 전체적 균형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실루엣을 부각 시켜주는 조명방식으로 특징적임
- 블록별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화 콘셉트에 맞는 빛 요소 미흡

국외사례의 경우 배경적요소의 연출이 과하지 않고 체계가 잘 잡혀 있어 전체 야간경관이 혼란스럽지 않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핵심적 요소별 특징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잘 된 편이었다. 또한 국내보다는 전반적인 가로의 조도는 낮지만 분위기가 있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감성적 공간으로 어필하며 지역 내 랜드마크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국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권장조도 이상의 다소 과장된 광원요소가 많았으며 주변 환경과의 상관성이 고려되지 못한 개별 요소의 부각만 이루어져 산만하고 조화롭지 못한 야간경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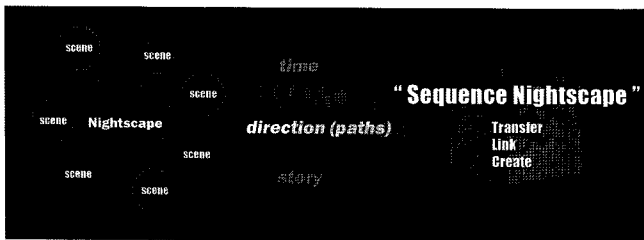
또한 국외,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성으로 경관 시퀀스를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행자중심가로의 전체적인 경관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공간이므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조명연출의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시퀀스적 개념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행자중심가로의 시퀀스 경관의 특성과 야간경관의 경관조명 연출

보행자중심가로 경관계획 시 고려해야 할 특징적 요소로 모든 가로가 연속적으로 지각 된다는 것이며 고정적인 시점에서의 조망점인 장면(scene)경관과 보행의 이동 등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다양한 시점을 갖고 있는 동적 경관 대상인 시퀀스(sequence)경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에는 조명되는 대상위주로 보여지는 경관 특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 장면의 경관요소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명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계획적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 주간과는 달리 경관을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관조명을 통한 시간별, 단계별 디자인으로 빛과 시간성에 맞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유동적인 시퀀스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빛의 여러 요소를 위계에 따라 구성하고 컨트롤하여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색온도의 강조 등을 통하여 질서적이고 점진적인 빛의 시퀀스를 연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야간경관 연출에 있어 시퀀스적인 경관연출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 기법에 대해서는 발전되지 못하였지만 다양한 방향에서의 장면(scene)의 심미적인 구성과 경관의 연속성을 강조한 시퀀스(sequence)라는 시점적 연출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절된 야간요소들의 조화와 흐름을 따라 스토리 있는 풍부한 야간의 가로 보행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시퀀스 경관조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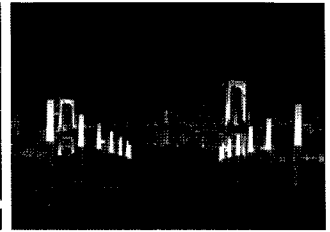
야간경관에서 나타나는 시퀀스 요소는 시각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시각구성 변수에 의한 시퀀스, 보행자의 경관체험에 따른 시퀀스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퀀스 빛 요소 표현기법을 위한 야간경관 시퀀스 표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형성

형태, 선, 색, 질감, 비례, 스케일 등 야간경관을 이루는 조명시설물의 형태나 재료 등의 동적 균형에서 오는 시각적 이미지는 야간경관의 시퀀스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연속되어지는 빛의 자극들은 일관된 힘을 갖는 연속적 형태로 지각 되어질 수 있다.



Absence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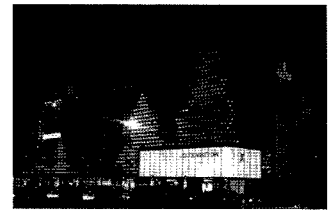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

시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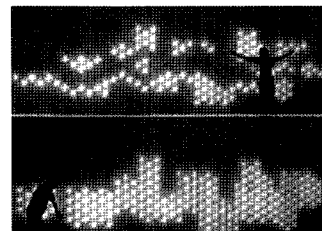
Greenpix

시간의 연속적 변화는 경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간별, 단계별 디자인으로 빛과 시간성의 맞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며 유동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 순환 원리인 사계절의 변화 등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야간의 자연 환경을 느끼게 해준다.



청담 갤러리아백화점

우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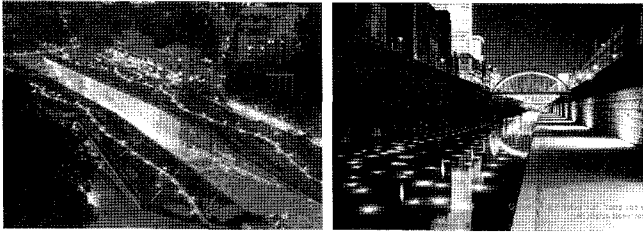
Light Brix



서울 길음역 지하도

참여디자인을 고려한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고려하며 관람객을 오브제인 구성요소로 인식하며 문화적 소통을 중시한다. 이때 빛은 사람의 행동에 따른 우연성을 토대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사람의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조도, 색온도 등의 빛 변화를 통해 조명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은 활기, 정열, 안락함, 휴식 등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위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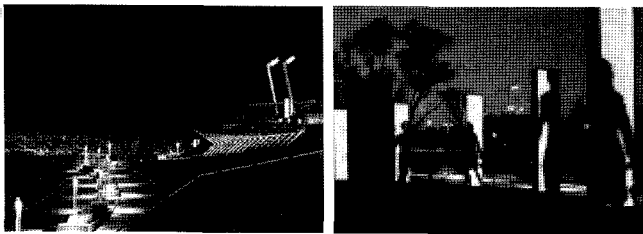


일본 도쿄

서울 청계천

전체의 공간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빛의 여러 요소를 위계에 따라 구성하고 컨트롤하고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색온도의 강조 등을 통하여 질서적이고 점진적인 빛의 시퀀스를 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된 연속은 동작을 유도하며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연계성



Line of Work

Reproject

야간의 다양한 경관요소 안에서 조명시설의 다양한 콘텐츠와의 결합과 가로시설물과의 통합화 등은 공간 안의 모든 요소를 빛의 요소로 연결하여 야간의 공간 흐름을 유연하게 연계시켜준다.

확장성



제니홀저 작품 - 런던

Body Movies

야간의 공간은 빛에 의해 고정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감각적 지각으로 인한 다양한 시각적 확장을 불러일으킨다. 외부 건축물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외부공간의 조명연출의 어우러짐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사라지고 확장되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면서 주간과는 또 다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빛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적인 공간에 빛의 역동적인 효과로 공간의 확장성을 주어 새로운 시퀀스를 연출할 수 있다.

마무리

최근 국내의 보행자중심가로 경관조명 연출현황을 살펴보면 기법이 나 양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인 조명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합적 계획 및 주변경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공공요소로서 보행자의 야간 활동 공간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보행자중심가로에서는 아직도 감성적 요소가 아닌 단편적이고 무분별한 조명계획으로 경관을 해치는 빛 공해 요소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향후 국내 보행자가로 공간의 개발 및 이미지 창출에 있어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1차원적인 안전을 위한 조명 계획 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적 공간연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 차원의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야간 가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며 올바른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행자가로를 전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도심 보행자가로에 대한 관심과 가로경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명계획 시 지속적인 시퀀스적 빛 요소 표현기법의 연구와 활용으로 연속성에 따른 빛의 공간 체험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이질적 요소의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제공하고 스토리 있는 보다 풍부한 야간의 보행자가로를 연출해야 할 것이다. 